



핵무기도, 핵발전소도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향하여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2베드 3,13)

지난 6월 말, 한국 천주교회와 일본 천주교회의 한일탈핵평화순례단은 합천 원폭피해자복지회관을 찾아 국내의 원폭 희생자들과 그 후손들을 만났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과 여러 사유로 일본에 거주하던 조선인 중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피폭된 이들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합천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식민지 지배와 강제 동원, 핵폭탄 투하에 따른 가족의 죽음, 피폭 후유증, 빈곤과 사회적 차별이라는 겹겹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한 김형률 씨가 세상에 알린 것처럼, 피폭자 후손들도 피폭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여러 질환과 장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인과관계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의 고통과 장기적인 조사·지원의 필요성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과 부담이 특정 지역의 주민과 힘없는 이들,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핵발전소 인근 지역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난 지 15년이 지나도 귀환곤란구역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많은 주민의 삶은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무기와 핵발전은 방사성 물질이 남기는 장기적인 위험, 사고와 전쟁·테러 상황에서의 취약성, 피해의 비가역성, 그리고 그 부담이 특정 지역과 미래 세대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공통된 윤리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현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6년 신규 핵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실증설비 1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지만, 핵발전소의 부지 선정, 건설 비용,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송전망 갈등, 사고 위험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안 시나리오까지 국민에게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반도체 산업단지의 확충이 국가 안보와 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전력과 물 부족, 국가균형발전 전략 등은 각 시민의 현재와 미래의 삶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상업용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약 31개 정도입니다. 독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에너지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2023년 마지막 핵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여 탈핵 국가가 되었습니다. 2024년 세계에서 새롭게 확충된 발전설비 용량의 92.5%는 재생에너지였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26년 미국에서 추가될 예정인 대규모 전력 설비 용량 가운데 태양광이 약 51%, 에너지 저장 장치(ESS)가 약 28%, 풍력이 약 14%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에너지 신규 투자는 태양광과 풍력, 저장장치와 전력망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미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고 있음을 우리도 직시해야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참화가 끊이지 않는 시대에 핵무장 또는 핵사용을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핵무기가 남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와 빈곤, 차별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또한 사고 위험과 고준위 폐기물의 장기적 부담, 긴 건설 기간과 지역 간 불평등 때문에 지속가능한 사회에 적합한 에너지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신규 대형 핵발전소가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2037년 이후이고, 핵폐기물 영구 처분장 운영도 2060년 이후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생명 중심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인류와 생태계의 수많은 생명을 포함한 전 지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일으킨 성장과 소비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야 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거부하며, 핵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하려는 계획과 설계수명을 넘긴 핵발전소의 계속 운전, 이른바 수명 연장 시도는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를 이어 피폭의 고통을 호소하는 피폭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핵발전소와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건강과 삶의 터전,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이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와 피폭 희생자들이 우리에게 알려 주는 교훈입니다.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상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탈핵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한국 천주교회는 기도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20주일

주일 헌금	902,000	주일헌금(송정)	283,000	교무금	995,000
양성, 복지, 원로	123,000	미래 기금	131,000	감사헌금	250,000
성모 승천 대축일		1,020,000	성모 승천 대축일 (송정)		194,000

교무금 이하나, 정구호, 이은순, 이원석, 이천희, 안영재, 권일용, 신정희, 강민정, 신현수, 강호석, 손삼술, 노양호, 김주하, 김은자, 최인순, 윤정숙, 박영수, 청안건설, 안남선, 이파랑, 함연하, 김정자

감사헌금 황준혁(스테파노) 100,000 이정자(루갈다) 50,000 이정호(아셀라) 100,000



성전 건축 기금 현황 2026년 8월 21일 기준

구 분			이번 주	2026년 누계
수입	우리 본당	교무금 납부시 건축기금	330,000	9,762,000
		약정 기부	720,000	142,990,000
		2차 헌금		8,318,950
		기타 수입		17,505,463
	외부 모금	타본당 모금	26,433,000	125,282,326
		매일미사	23,600,000	40,020,000
		평화방송	7,135,000	17,746,000
		가톨릭 평화 신문	140,000	8,489,000
		가톨릭 신문	3,630,000	28,948,000
		기타 후원		19,006,000
합 계		61,988,000	418,067,739	
지출	건축	설계비		36,041,570
		건축 준비비		5,960,000
	모금 홍보	광고비	88,000	34,738,000
		모금 준비비	560,000	3,752,550
		봉사자 지원비	636,180	1,440,850
	합 계		1,284,180	81,932,970
	현 잔액			1,002,982,685

본당 약정기부 약정기부 143세대 187,300,000원 중 142,990,000원 납부 (납부율 76.34%)

최윤정, 정현희, 정동주, 박인옥, 최정화, 하람물류

타본당 모금

스무숲성당 1,250,000원

민옥동, 이진선, 김지연, 김기숙, 권민석, 이요한, 최윤희, 김성제, 박성선, 최형규, 최혜정, 김호중

죽림동성당 850,000원

오은진, 김범한, 조남수, 전미라, 이정교, 전청자, 박양옥, 박경숙, 추연철, 심원보, 김상희, 황금옥, 배혜연

교동성당 24,333,000원

남보경, 양밖음, 홍미림, 권정문, 손옥순, 이선녀, 배하영, 이성근, 이규철, 이유찬, 조은정, 김광철, 박미영, 김정숙, 박영진, 남호은, 박현영, 최명희, 최구혁, 황연진, 정하나, 이용연, 김정애, 이정관, 염지미, 이유경, 박애너스, 곽중혁, 서경자, 김영선, 진미경, 이정우, 박성관, 최용분, 이영희, 김민숙, 이옥란, 신현숙, 김은희, 김상기, 김별이, 김지영, 문은숙, 배순득, 김정무, 유영민, 공연희, 최상득, 송숙녀, 김정은, 강영순, 구다현, 유재훈, 이가영, 주순희, 변수정, 송명순, 송서호, 홍영조, 서민수, 오경자, 박정옥, 심미주, 이은진, 김정임, 김왕영, 김지혜, 이경자, 김동현, 김지영, 김태완, 주정열, 허정자, 김유리, 김영숙, 김창일, 이혁준, 장순옥, 장기정, 김복환, 김지연, 김영희, 황봉호, 김미란, 김인수, 이호근, 한현숙, 원정아, 현옥현, 서정표, 신낙근, 장지혜, 양승언, 이동락, 원서연, 김성현, 이정민, 이상은, 장유정, 김채영, 신재복, 원소정, 권상호, 강옥태, 박선우, 남은주, 조영주, 김명석, 김순희, 조한숨, 조예숨, 조기웅, 이슬라, 박우진, 김라미, 이완옥, 김미자, 이은주, 김설희, 유혜정, 조민경, 김형봉, 이정숙, 오명환, 서옥매, 김택수, 성미영, 김남경, 한수경, 강경식, 류우성, 김명자, 전형배, 최효섭, 강대성, 서찬교, 한의석, 장금자, 송명호, 유수근, 전기수, 박인숙, 노하나, 박서남, 황국자, 박윤목, 차효선, 김영순, 박인준, 구승규, 이월자, 이은섭, 천옥배, 박지원, 장병호, 김귀열, 이해용, 신형직, 문동여, 윤현민, 이기홍, 박장수, 강순연, 김영관, 최정자, 김은진, 박영섭, 이명자, 추정옥, 김금춘, 김영자, 안정복, 유복순, 유춘자, 허재무, 장양순, 홍효원, 최복희

매일미사 손재현, 한정아, 황정환, 권미영, 오한옥, 박태수, 용인동백성당, 임재연, 이경은, 유명자, 엄인숙, 김정실, 박주미, 양준, 박영빈, 익명, 신상숙, 김은영, 김혜린, 정영수, 정옥심, 박정수, 조동우, 윤강현, 이용미, 정종관, 나경민, 이새미, 이대홍, 박베드로, 한은숙, 김정심, 공운표, 신순희, 오정숙, 김선일, 이정미, 김다훈, 이희숙, 김이정, 최병진, 문인기, 김순옥, 허진옥, 박신자, 이송학, 이명옥, 최병종, 전형주, 이해선, 세례자요한, 김화자, 김혜연

평화방송 박재은, 이정희, 양동현, 최용찬, 홍명자, 김이웅, 이차숙, 박현, 안금자, 정성희, 박준영, 윤소영, 김인순, 김경화, 하수연, 남순강, 최순자, 손정아, 홍군자, 맹재임, 고경순, 주금자, 노의자, 이병순, 박철규, 최용임, 이은선, 허성원, 이옥자, 권두선, 서승희, 박계화

가톨릭신문

우현주, 김정윤, 황인선, 이성신, 남시완, 이경자, 한일선, 최영주, 박남수, 김우생, 이경순, 이오령, 박희숙, 조효민, 이은경, 허미영, 정단우, 정단현, 정재용, 김혜영, 조화자, 서순자, 봉수경, 박귀철, 이소정, 실비아, 마리아

가톨릭 평화 신문 황봉철, 차대식, 허스테파니아

지출

광고비 ARS 유지관리비(7,8월)

모금준비비 교동성당 모금 옥수수 구입

봉사자 지원비 교동성당 모금팀 식대 136,180 사무장 추가수당(8월) 500,000



미사 참례 현황

총 신자 710명 중 대축일미사 186명 참례 / 참례율 : 26.20%

총 신자 710명 중 주일미사 191명 참례 / 참례율 : 26.90%

평일미사		월 (8/17)	화 (8/18) 내촌 / 본당	수 (8/19) 본당 / 송정	목 (8/20) 송정 / 본당	금 (8/21) 본당 / 역내
		14명	16명 / 26명	15명 / 14명	11명 / 22명	16명 / 10명
성모 승천 대축일 (8/15)	내촌공소	금요일 저녁	두촌공소	송정공소	교종미사	철정공소
	25명	27명	22명	26명	68명	18명
주일미사 (8/16)	송정공소	교종미사	저녁미사			
	41명	122명	28명			



성전 건축을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봉헌

이번 주 묵주기도 중 기억할 분들 (8월 24일 ~ 8월 30일)

월	이인숙 사라, 이영숙 수산나, 허경화, 전진희, 국현성 비비안나, 박정희, 이성구 사도요한 신부, 문성희, 이준열, 유 비아, 채혜원, 김재웅, 김순달 살로메, 김 베네딕다, 정 마르가리타
화	나성미 마르티나, 이형수 요셉, 박진복, 이건, 김익현, 김정혜, 최광훈 요셉, 최정자 차금석 말지나, 김상돈 사도요한, 권지호 프란치스코, 김옥란, 정주희, 전태용, 김은경 로사
수	김태희, 정태화, 조정형 요셉, 이영수 바오로, 김영화, 이진주, 임재광, 김영희, 이정자, 정은경, 박자애, 김성엽, 박희숙 요안나, 오혜순 데레사, 최은희 모니카
목	배노미, 박길영 예로니모, 성가정재단, 엄인영 세실리아, 문지혜 소피아, 성기정 마르첼리노, 박유민, 박용철 토마스, 조현, 공선금 마리아, 김순자, 김가희, 이선기, 권성신, 원정숙 아네스
금	양영순, 이경옥, 배진홍, 유신혜, 조영식, 김주한, 조현, 김애경, 김지환 안드레아, 김선희, 김 에밀리아, 송재욱 알베르토, 정 글라라, 정순길, 박성호 토마스
토	박승지 프랑카, 김동훈, 전길순, 김인선 아폴로니아, 공원준, 송효정, 윤희영, 김순길 사도요한, 박혜영, 노영임, 정선복 모니카, 고재숙, 전정자 베로니카, 추연철 루카, 박영순 베로니카
주일	오봉환 바오로, 정미주, 문정혜, 이요한 세례자요한, 최윤희 스텔라, 김성제 이냐시오, 권민석 요셉, 전미라 세라피나, 박경숙 모니카, 이정교, 심원보, 권희숙 데레사, 윤정숙, 지춘자, 박현희

레지오 훈화 -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올바른 성모 신심

가톨릭 교회의 성모 공경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역사는 그리스도교 제자 공동체까지 소급된다. 요한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제자 요한 사이에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맺어 주신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요한 19,27)라고 전한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이후 마리아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며 활동하셨던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사도)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예 전념하였다”(사도 1,14). 한국 가톨릭 교회도 초창기부터 성모 마리아를 의지하고 공경하였으며, 이러한 전통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가톨릭 신자들이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가 바로 묵주 기도(로사리오)이다. 본당에서 성모 성월에 열리는 성모의 밤 행사뿐 아니라 성모 성지 순례나 성모 공경 행사에 많은 신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 가톨릭 신자 가정에는 예외 없이 성모상이 있다. 한편으로 같은 하느님을 믿으면서도 특히 우리나라의 프로테스탄트는 가톨릭 교회의 마리아 공경을 우상 숭배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들은 가톨릭 교회를, 마리아를 여신으로 숭배하는 ‘마리아교’라고까지 말한다.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가톨릭 교회는 일찍이 성모 공경을 하느님 흠숭과 구별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구별은 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다.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또는 “저희의 기도를 허락주소서.”로 기도를 맺는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를 비롯한 성인들에게 드리는 기도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또는 “저희의 기도를 전구하여 주소서.”라는 문구로 맺는다. 그로써 기도가 향하는 마지막 상대자가 바로 하느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오랜 역사와 더불어 정당한 성모 공경이 일부 잘못된 성모 신심과 교리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프로테스탄트에게서 비난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성모 공경의 역사와 교의를 통하여 그 정당성을 밝히고, 또 한편 오해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가톨릭 신자들의 잘못된 성모 신심 행위를 바로잡아 올바른 성모 공경을 제시하고자 한다.